두 개의 진영과 다양한 국민

- 정치부진의 이유

김태일 장안대학교
tkim@ynu.ac.kr

오늘날의 정치 부진은
정치인의 교양과 자질 문제로 보기보다는
정치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.

1.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

ㅇ 민주화 과정

- 억압의 이완 decompression
- 자유화 liberalization
- 민주화 democratization
- 민주주의의 공고화 consolidation
  (실질적 민주주의와 생활세계의 내면화)

2. 두 진영, 두 국민

□ 일제 지배, 분단 체제, 군부 독재, 지역 차별 + 소선거구제
- ㅇ 친일-독립, 좌-우, 영-호남, 진보-보수 이분법적 대결 구조화
- ㅇ ‘배제’가 정치의 기본 문법

□ ‘두 진영, 두 국민 ' 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결손 **(缺損)**

(1)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 – 혐오와 배제의 정치

(2) 지역주의 구조화

(3)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 부응 불가

(1) 혐오와 배제의 정치

-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증오, 배제의 정치 일상화

-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상대가 못하도록 하는 경쟁이 기본 문법

- 정치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

-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정책대안을 찾지 못함

(2) 지역주의 구조화

- 약화되고 있다 vs 심화되고 있다
- 두 개의 벡터가 갈항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.
- 나의 결론은 구조화의 힘이 여전히 압도적이다.

- 감정 => 정당일체감 => 가치의 내면화로 점점 더 구조화
- 김부겸(대구), 이정현(순천)의 경우는? <까치밥>이론으로 설명
- '거울효과 ' 에 의해 무한 재생산

- 양쪽 거울을 동시에 깨야 한다.

- '거울깨기'란 선거제도 개혁이다.

(3) 대전환 시대의 정치 부재

ㅇ 지구적 대전환의 과제
- 기후위기, 불평등, 세대 균열, 저출생, 젠더 등

ㅇ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영을 넘어 ‘숙의 ' 와 ‘사려 ' 필요

ㅇ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는 두 개의 진영이 개입하는 순간 노선투쟁으로 변화
- 다양한 가치를 다루는 ‘정치적 다양성’ 절실하게 필요

3. 두 개의 진영, 다양한 국민

□ 새로운 사회적 존재의 등장

ㅇ 전통적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성격의 유권자

ㅇ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

(1) 기회주의적 존재 ?

(2) 까다로운 존재?

ㅇ 여의도 전략가, 평론가들의 생각

(1) => 몰아붙이기, (2) => 갈라치기

현재의 유권자 지형-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 (2022.9.2)

그림1. 가치 지향에 따른 6개 유권자 그룹과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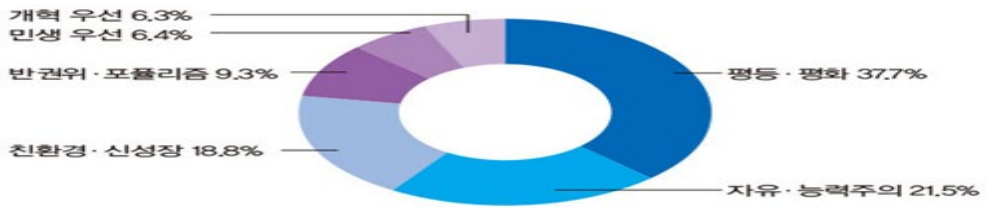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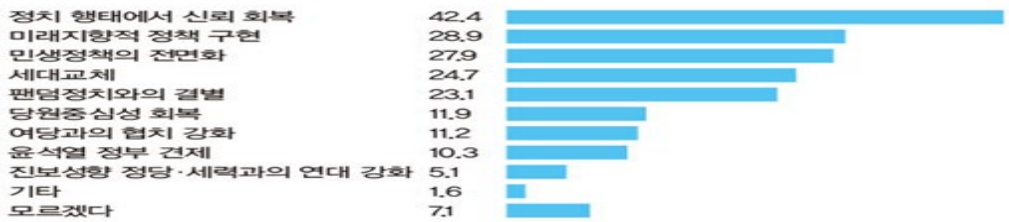
그림2. 정당별 이미지 비교

단위: %



그림3.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과제

(1순위+2순위 복수응답, 단위: %)



조사대상: 전국 만 18~69살 남녀 3천 명
조사기간: 2022년 8월10~11일 온라인 조사
표본오차: 95% 신뢰수준 ±1.8%포인트
조사기관: 글로벌리서치
표본추출방법: 패널 약 84만 명에서 성별·연령대별·권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무작위 할당 추출

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 보고서 (2022.9.2) 요지

“전통적인 진보-보수 구도는 붕괴되어 있었다.

유권자 지형은 크게 6그룹으로 나뉘었다.

민주당 지지층도 2~3그룹으로, 국민의힘 지지층도 3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었다.

이것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탈냉전, 탈물질주의, 다원주의적 경향이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.”

앞에서 소개한 <6개의 유권자 그룹>

- 그룹1: 평등·평화 그룹(37.7%)
- 그룹2: 능력주의 보수 그룹(21.5%)
- 그룹3: 친환경·신성장 그룹(18.8%)
- 그룹4: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(9.3%)
- 그룹5: 민생우선 그룹(6.4%)
- 그룹6: 배타적 개혁우선 그룹(6.3%)

이관후, “한국 유권자, 보수-진보 이분법은 끝났다“ [피렌체의 식탁] 2022.9.2.

- 문재인의 지지기반은 견고했지만 확장성은 떨어졌다. “검찰개혁이 유권자층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순간, 민주당은 2개 그룹에 갇혔다.” 보수는 분열되어 있었으나 “연합을 하면 그 규모는 민주당 지지층을 압도한다.”
- “중도 논쟁, 의미 없다.” “중간에 어정쩡하게 선다면, 두 그룹으로부터 모두 버려질 것이다.”
- 민주당은 평등·평화 그룹. 배타적 개혁그룹에 만족해서는 희망이 없다.
  “이들을 설득해서 지지층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.”
- “전통적 진보 가치 뿐 아니라 환경, 혁신 성장 같은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해야 한다.” 그리고 “특정 정치 이슈에 대한 과격주의를 포기해야 한다.”

- 국민의힘과 가치 경쟁을 해야 하는데 걱정의 하나는 ‘소통, 도덕성, 세대 공감’ 등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비친다는 것이다.

4. 양당독점을 넘어서는 정치적 다양성 필요

ㅇ 지난 대선 마지막 전선은 정권교체 vs 정치교체였다.
- 민주당(정치교체)는 구조론, 국힘(정권교체)는 행위론
- 행위와 구조는 별개가 아니며 두 당은 다른 소리하는 것이 아님

ㅇ 두 개의 '역사적' 문건 – 희망의 단서
- 윤석열+안철수 합의문
- 이재명+김동연 합의문

ㅇ 국민통합, 정치개혁에 같은 뜻을 천명했다. 정의당도
- 승자독식 양당체제에서 다원주의 정치로

정치개혁을 위해 '악마와도 손잡아야 '

ㅇ 최소강령, 최대연합
- 정치세력이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매력을 만들어야

ㅇ 지금 두 세력 모두 정치개혁에 나설지 지켜 봐야
- 민주당, 민생 우선 => 내부적 압력(지역, 청년 등) ?
- 국힘, 내부권력투쟁 => 회복탄력성 위한 마지막 반전 카드 ?

ㅇ '악마와 손잡다 ' 는 결과 책임을 이루는 정치적 리얼리즘
- 상대진영의 의제를 수용하는 담대한 '껴안기'

5. 어떻게 할 것인가?

ㅇ 걱정거리

- 정치개혁에 대한 효능감 약하다. ‘잘 될까?’ ‘이러다 어영부영하겠지.’ 거듭되는 좌절의 후유증 때문에

-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. 총선 일정 감안하면 ..

- 추동력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? 두 진영의 ‘사각지대 ' 인 영호남 지역, 정치적 약자인 ‘청년 ' 이 고작이다. 전통적으로 정치개혁의 동력이었던 ‘여성‘ ‘시민사회’ 힘은 찾아보기 어렵다.

ㅇ ‘작은 성과’라도 만들어야 한다.

- ‘다양한 국민’을 담아내는 정치적 대의체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선도하는 세력이 정치적 다수연합을 만들어

- 최소강령, 최대연합을 형성

정치적 다양성 실현을 위한 최소과제

- 정당 설립 요건 완화
  - 현행
    전국 5개 이상 광역자치 지역, 5천 명 이상 당원, 서울 사무실
  - 로컬 파티, 싱글 이슈 파티 등장 촉진

- 선거제도
  - 중대선거구제, 석패율제, 권역별비례제, 도농복합선거구제 등

- 공론민주주의 확산